



Ewha Medical School News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여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18-19)

발행인·박혜영 | 편집인·박혜숙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11-1 | 전화·02-2650-5703~4 | 팩스·02-2653-8891 | 제 19 호 <2009.03>

*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소식

◆2009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십 캠프 개최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십 캠프가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본교 신촌 캠퍼스 ECC 내 이상봉 홀에서 개최되었다. 총 74명

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캠프는 세종리더십 김은경 원장의 강의와 함께 자신들의 리더십을 자가진단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리더십 교육연극'과 권복규 의학교육차장의 지도아래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을지 조별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날 저녁에는 김태임 제17대 의대동창회장에게 선배 여성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학생회·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재학생-신입생의 만남과 조별장기자랑 시간을 갖기도 했다.



캠프 둘째 날은 이수진 OK 내과 원장의 '기독교 의료 리더십'에 관한 열정적인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계속해서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과의 대화시간이 이어졌으며, 서석효 교무부원장, 이홍수 학생부원장, 한재진 의학교육부장, 박혜숙 기획부장님들과 함께 수업이나 학교생활 등에 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던 이번 캠프는 신입생들에게 동기, 선배, 교수님들과의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여성의료인으로서의 리더십을 새로운 시각으로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한 신입생은 "이번 캠프를 통해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더불어 사는 리더십을 일깨워주셔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 개최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2월 26일 의학관A동 김옥길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입학식은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76명과 많은 학부모들,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으며 입학식 이후에는 기초의 학교실 소개 및 교과목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마련되었다. 2007학년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 행사를 통해 많은

◆2008학년도 의과대학 졸업식 열려



2008학년도 의과대학 졸업식이 2월 23일 본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70여 명의 졸업생, 교수,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위 및 상장 수여식, 동창회 입회식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의학과에서는 학사 86명, 석사 31명, 박사 7명이 배출되었으며, 학사 학위 수여자 중 수석 졸업상은 성은아 학생, 김애다상은 임선희 학생, 대한



의사협회장상은 박지은 학생, 대한의학회회장상은 최윤미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그리고 동창회장상은 강현주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최우등상은 1명, 우등상은 9명의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이번 졸업식은 작년에 이어 세번째로 의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진행한 행사로 의대 졸업생의 지속적인 모임을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제2회 PBL 워크숍 개최



제2차 PBL 워크숍이 2월 6일 본교 신촌 캠퍼스 ECC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PBL 워크숍은 PBL에 대한 발전된 개념을 공유하고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개최되

는 것으로, PBL 수업의 개념과 원칙, 진행 등에 관한 강의와 소그룹 토의 및 Tutor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룹 토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PBL 워크숍에는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 이지수 PBL 위원회 위원장 외 PBL 위원 15명, 36명의 교수들이 참가하여 PBL 교육에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토론하고, 3개의 모듈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0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모집요강 발표

2010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모집요강이 3월 16일 홈페이지(www.ewhamed.ac.kr)를 통해 공고되었다. 수시모집에서는 작년과 같이 M.D.과정(의무석사과정)에서 일반전형 42명과 특별전형 4명, 총 46명을 선발한다. 전년도와 비교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이미 예고된 대로 4개 지정계열(인문사회 및 어학, 생물학, 화학, 수학 및 물리학 계열)에서 총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선수과목 제도가 있다. 또한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층구술면접 시 새롭게 필답고사를 시행하며, 특별전형 유형 중 우수 자연과학연구능력 소지자 전형과 타 의학계열 전공자 전형에서는 지원 자격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 밖의 모집요강 내용과 각종 제출 서식은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과정관련 교수 워크숍 개최

지난 2월 12일 의학과 B동 EMSC에서 통합과정관련 교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의전문 통합과정 3년째를 맞아 지난 과정을 검토·논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통합과정 개발 및 보완 자료를 얻고자 마련된 자리로,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서석호 교무부원장, 각 학년 책임교수와 교실별, 과정별 대표 등 47명이 참석하였다.

◆2009학년도 White Coat Ceremony 열려



2009학년도 의전문 2학년 학생들의 White Coat Ceremony가 3월 27일(금) 김옥길 홀에서 진행되었다. 학부모와 교수, 선·후배가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한재진 의학교육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의식은 장운재 교목의 기도와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서현숙 의무부총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제17대 김태임 의대동창회장이 '선배 의사 말씀'을 통해 의사의 길로 나아가려는 학생 의사들을 격려했다.

학의식에는 서현숙 의무부총장,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 김승철 여성암전문병원장, 김태임 의대동창회장, 한운섭 전임학장, 이순남 전임학장이 참석하여 엄숙한 가운데 모든 학생들에게 흰 가운을 입혀 주었으며, 성연아 임상교무부장이 새로 발급된 병원 신분증을 나눠주었다. 가운을 입은 학생들은 권복규 의학교육처장의 선언문 해설을 듣고, 다함께 '학생의사윤리선언문'을 선서하였다. 각 임상 교실 주임교수의 소개가 이어지고, 교가와 축도를 끝으로 White Coat Ceremony의 공식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식후 의전문 1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을 위하여 짝짝 축하공연을 마련하였으며, 뜨거운 호응 속에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축가를 선사하였다.

◆세종문화회관 플롯앙상블 초청 음악회 개최



이화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3월 17일 오후 5시 김옥길홀에서 '플롯앙상블과 함께하는 해설 음악회'를 개최해 학생 및 직원 그리고 목동병원 환우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문화회관의 '함께해요! 나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열리게 된 이번 음악회는 해설을 곁들인 클래식 공연으로 서울 시소년소녀합창단 원학연 단장이 지휘하는 '플롯앙상블'의 연주로 진행됐다. 플롯앙상블은 국내 보기 드문 플롯을 전문으로 하는 실내악 공연팀으로 음악계의 플롯 발전을 위해 매년 정기공연과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의 '함께해요! 나눔예술'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세종문화회관 산하 9개 예술단을 주축으로 병원, 학교, 각종 복지시설 등을 찾아 평소 공연 관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번 가을에는 국악콘서트(9월 9일)가 예정되어 있다.

◆태아 기원성 질병 심포지엄 개최

- FOAD 연구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의 시발점 제공



지난 2월 11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원장 : 박혜영)이 의과관 A동에서 FOAD(Fetal Origin of Adult Disease : 태아 기원성 질병)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연구소, 이화 FOAD 센터, BK21 이화의 학글로벌헬리지사업단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이화의 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하은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용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1부에서는 이화의 학전문대학원의 예방의학교실 박혜숙 교수가 '태아 기원성 후생학적 질병 중 역학 연구', 분자의과학교실 조인호 교수가 '후생학적 동기에 대한 수컷의 수정능력과 벤조피렌의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이화의 학전문대학원 생화학교실의 정성철 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특별히 초청된 일본 토호쿠 대학 생체 의학 공학 센터의 타키히로 아리마 교수가 '유전적 각인과 태반 형성'에 대해 발표하였고, 함춘여성산부인과의 최진 박사가 '배아 발생에서의 DNA 메틸화', 지노믹트리사의 오태정 박사가 '자궁경부암에서 암의 후생학적 계통과 응용을 위한 계통의 광범위한 기술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FOAD 심포지엄은 연자 교수들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FOAD 연구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FOAD란 태아기에 가해지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 성인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개념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2001년 이화 FOAD 센터를 설립

하여 영유아 성장 코호트(Cohort:연구집단)를 운영하며 관련된 의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분자영상학 심포지움 개최



지난 1월 22일 이화의학전문대학원은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분자영상학(Molecular Imaging)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학 연구소, 여성암연구소, BK21이화의 학글로벌별첨리지사업단 등이 후원해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는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100여명이 참석해 분자영상학이 현재 의학연구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기전에 대한 연구와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미래를 예측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분자영상’은 생체내의 특정 질환에 관련된 분자 및 세포를 목표로 설정하여 실시간으로 영상화 하는 최신 영상기법으로 시험관 실험에서의 결과에 비해 생체 내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1세기 생명과학연구의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2008 회계연도 이화해외의료봉사단 (EMC) 활동 - 교수진, 학생 등 22명 베트남에서 의료봉사 펼쳐

2008 회계연도 동계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이 지난 1월 7일 발대식을 갖은 뒤, 10일부터 7박 8일의 봉사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번 의료봉사단은 치과 전유식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 내과 이순남 교수, 영상의학과 최혜영 교수, 예방의학과 박혜숙 교수, 정형외과 신상진 교수, 이비인후과 이승신 교수를 비롯해 전공의, 약사, 간호사, 이화여대 재학생을 포함하여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베트남 하노이 및 인근 지역에서 무료 검진과 진료, 특강 등 의료봉사활동을 수행했다.

한편,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1989년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해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봉사활동 무대를 넓혔고, 2007년 이후에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연 2차례 의료봉사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이니셔티브 이화(글로벌 인재약성) 발전기금

의료 및 교육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국외 대학 및 병원과의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협정을 통해 교육비는 각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교통비, 숙박비 등은 학생 자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교류에 꼭 참여하고 싶지만 경제 여건이 어려운 본교 학생 및 이화로 오길 원하는 저소득 국가의 학생들에게는 국제 교류의 기회가 사실상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교 및 세계의 학생들이 살아있는 국제 교류를 후원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후원의 손

길을 기다립니다.

(약정문의 Tel: 02)2650-2893)

•4월 9일 현재 약정금액4,570만원, •참여 교수 및 동문 : 33명

* 의료원 동정

◆이화의료원, 여성암 전문병원 개원

이화의료원(의료원장:서현숙)이 여성암 분야 특화 육성을 위해 3월 2일 국내 종합전문요양기관 최초로 여성암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이대여성암전문병원(병원장:김승철)을 정식 개원했다.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은 유방·갑상선 종양센터, 부인종양센터, 여성전문 건강 검진센터, 여성암 연구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 친화적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첨단 암 진단 장비 및 최신 암 치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성암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 동창회 소식

◆이화의대 동창회, 제43차 정기총회 개최



김 태 임 회장

의대동창회는 지난 3월 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회장에 김태임(동호의원) 동문을 선출하고, 제2회 자랑스런 박에스더상에 이흥주(1회) 동문과 올해의 이화인 이재옥(28회 수원이재옥산부인과원장)동창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 흥 주 동문

김태임 신임 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2년간의 동창회 목표를 ‘사랑을 나누는 동창회’로 정하고,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주 만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리인 다양한 동호회 모임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백분의 일의 나눔이란 장학금 모금 운동 전개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학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후배들을 돕기 위해 수입의 백분의 일을 기준으로 기부 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 옥 동문

정총에서는 연구비 및 장학금 수여와 2008년도 감사 보고에 이어 △지회 및 동기회 활성화 △발전기금 모금 활동 추진 △모교와의 유대강화 등의 사업계획과 2009년 예산 1억7785만7854원을 확정했다.

◆‘한빛’박영미 박사 연구 논문 NEJM에 소개

국가지정 생물학 연구정보센터(BRIC : 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에서 ‘한국을 빛낸 사람들’로 선정된 박영미 동문(1996년 졸업)의 연구 논문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Lipid 및 혈관 분야 권위자인 Linda Curtiss 박사에게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3월12일자)의 "Clinical Implications of Basic Research" Section에 "Reversing Atherosclerosis"라는 제목의 증설에 임상 적용에 우수한 기초연구 논문으로 소개 되었다. 이 논문은 급성 심장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증이 형성되는 기전과 이 과정에서의 CD36의 병리적 역할을 밝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동맥경화증 형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해외교류보고

베트남 땅에 뿌리고 온 씨앗

-2009 EMC 베트남 의료 봉사를 다녀와서-



의전원 M3 박보람/
jwzhse@hanmail.net

M2가 끝난 겨울 방학. 반복되는 일상과 학업 스트레스로 답답함을 느낄 때 쯤, 베트남 하노이 근교로 의료 봉사를 떠나게 되었다. 방학 때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지만, 의료 봉사에 지원하게 된 것은 내게 새로운 동기부

여의 시간이 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1월 10일, 5시간의 비행 후 도착한 베트남은 한 밤중이었다. 현지에 계시는 김시찬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셨다. 선교사님과 현지 통역관을 만나니, 그 동안 상상만 해왔던 봉사가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1월 12일 월요일 아침 7시, 가져온 약품과 진료 물품들을 가지고 우리는 드디어 이틀 간 사용할 첫 진료소로 향했다. 도착한 마을의 건물은 진료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낡았고, 건물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창문도 잘 닫히지 않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낮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눈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첫날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도왔다. 아침에 안개가 꺼져 쌀쌀했다. 날씨도 추운데다, 교수님과 나, 통역관. 이렇게 세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려 진료가 빨리 진행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오후에는 날씨도 따뜻해지고, 호흡도 잘 맞아서 많은 환자를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었다. 통역과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고 나서야, 일이 아닌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기대와 희망에 찬 환자들도 있었고, 삶에 매우 지친 모습의 환자들도 보였다. 또 아이들은 솜사탕과 사진기 구경에 진료소 근처를 떠날 줄을 몰랐다. 가정의학과 진료는 한국어·영어·베트남어순의 통역이 필요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통역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교육에 힘쓰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최선을 다해 통역을 도왔다. 기본적인 의학상식도 접하기 쉽지 않은 이 곳 기에, 사람들은 간단한 교육과 약 처방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세 번째 날의 진료소는 호주에서 지어준 건물이었다. 첫 번째 진료소와는 다르게 선진국의 진료소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베

트남어로 번역되어 벽면에 붙어있던 각종 건강 지식과 보건 교육용 포스터들은 호주 사람들의 베트남을 위한 작지만 큰 배려였다. 의료 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의료 환경 지원 또한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셋째 날,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진료를 도왔다. 정형외과 진료에서는 베트남어로 환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베트남어로 간단한 증상 관련 질문을 하였다. 나의 서툰 발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며 흥미로워 하는 모습에 나도 자신감이 생기고 베트남에 온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그냥 돌려보내야 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앞이 잘 안 보인다'며 온 환자들이 종종 있었는데, 돌려보낼 때 실망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도 안타깝게 했다. 도움 받는 사람들의 현실에 맞추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여 봉사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돌아온 지 2주가 지난 지금,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립다. 또한 봉사 기간 내내 단원들을 보살펴주신 교수님들과 선교사님께 정말 감사하다.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왔던 의료 봉사/선교... 직접 겪고 보니, 진실한 섬김의 마음과 장기간의 준비,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봉사 일정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갔음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숙소와 땀뻑한 하루 일정, 익숙하지 않은 베트남 현지 음식을 접하면서 봉사에는 숨은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나의 삶의 현실, 교육 환경, 받고 있는 모든 혜택,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제력까지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두' 감사해야 할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해 준 시간이었다.

올해 초, EMC (Ewha Medical Care)가 '한미 참의료인 상'을 받았다. 상의 이름이 왜 '참의료인'일까. 나에게는 이번 봉사가 바쁜 현대의 경쟁 사회에서 참된 의료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EMC의 봉사가 더욱 활발해지고,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 더 많은 씨앗을 뿌리고, 또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화의대 졸업 50주년 및 30주년 모교 방문의 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매년 졸업 50주년 및 30주년이 되면 동창분들을 모시고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과대학 창립 64주년을 맞아 8회 (졸업 50주년)와 28회 (졸업 30주년) 동창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오셔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시고 정다운 추억에 대해 나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사 일시는 아래와 같으니 비번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5월 29일(금) 오후 6:30~8:30
- 장 소 : 목동 이화의대 의학관 A동 1층 김옥길홀

◎의과대학 역사실에 전시할 자료를 찾습니다.

의과대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화의료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의과대학 내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역사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화의료원의 역사기록물이나 의료사료(의료 장비, 사진, 기록물 등), 학창 시절 사진, 업적물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증품들로 역사실을 꾸밀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복사 가능한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복사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화의대 발자취 전시기획 위원회